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12월 23일(목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담당 부서: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최은정 ☎440-8514 • 담당자 정승혜 ☎440-8515
사 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
- 인천보건환경연구원, 유통 전(前) 길목검사 도입 노력 -

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에서 유통된 수산물 중 45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이번 조사의 대상은 대형마트, 어시장 등에서 판매된 다소비 수산물과 명절 및 제철 수산물이며, 검사항목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및 동물용의약품, 중금속, 타르색소, 이산화황, 사카린나트륨 등이다.

특히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마른 김에서 감미료인 사카린 나트륨 사용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.

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 ‘유통 전(前) 길목검사’ 를 도입할 예정으로, 길목검사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수거·신속 검사를 거쳐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는 원스톱 검사체계를 말한다.

한편 식약처는 유통 길목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부적합 유통 차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, 경기, 인천, 부산에 장비 구입비의 50%를 지원하기로 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인천의 자생적 유사도매시장은 전국 양식 활어 유통량의 1/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선제적 검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.”라며 “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,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막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

▲ 활어시장



▲ 수산물